



# energy snapshot

Analyst. 손지우 / 3773-8827, jwshon@sk.com

## 유가 문제는 해결, 관건은 이제 “이란”

- ▶ 석유수급 차질 없을 것으로 발표되며 유가는 회귀될 것. 하지만 美 + 사우디 Vs 이란 긴장관계는 외려 더욱 고조 중임. 이란 제재 강화 시 거시경제적으로 국제정세 불안 고조 뿐만 아니라 美-中 관계 불안까지도 연결될 수 있음

사우디 피폭사태, 석유수급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듯

### 사우디 “원유생산 이달말 정상화”... 국제유가 진정국면

(전략) 17일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신임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리야드에서 “이번 공격으로 손실된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다”며 “9월 말까지 하루 980만 배럴의 정상적인 생산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석유비축량을 활용해 석유시설 피격 전 공급 수준을 회복했고 고객들에 대한 공급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압둘아지즈 장관은 9월 말까지 석유 생산능력을 하루 1100만 배럴로 끌어올리고 11월 말까지는 1200만 배럴 생산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략)

자료 : 문화일보(2019년 9월 18일), SK증권

- 전주 에너지 스냅샷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 유전 피폭 사태에서 중요한 관건은 2가지라 말씀을 드렸었죠. ① 유가와 관련해서는 설비 복구기간 / ② 더 중요한 건 미국-이란 긴장고조였습니다

-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유전은 의외로 빠른 시일 내로 복구되는 분위기네요. 즉 유가는 곧 진정되겠습니다
- 사우디 에너지 장관 압둘아지즈 빈 살만은 현재 980만b/d까지 회복해 피폭 이후 손실분의 절반 이상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고, 동시에 비축유를 통해 계약물량에는 이상 없다고도 확인했습니다
- 9월 말 1,100만b/d까지 회복되고, 11월 말 1,200만b/d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공개되었는데, 그러면 사실상 원유수급 차질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관건은 미국-이란의 긴장관계 고조

### Iran Envoy Warns of 'All-Out War' if Hit for Saudi Oil Facility Attack

Any attack on Iran by the U.S. or Saudi Arabia will spark an “all-out war,” Tehran’s top diplomat warned Thursday, raising the stakes as Washington and Riyadh weigh a response to a drone-and-missile strike on the kingdom’s oil industry that shook global energy markets. (중략) Pompeo said he hoped Iran would choose a path toward peace, but he remained doubtful. He described “an enormous consensus in the region” that Iran carried out the attack. (중략) Trump has been noncommittal on whether he would order U.S. military retaliation. He said (중략) moving to increase financial sanctions on Tehran over the attack, without elaborating. (하략)

자료 : Time(한국시각 2019년 9월 20일), SK증권

- 하지만 다른 한 가지, 즉 유가보다 거시경제에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관계는 반대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일단 미국과 사우디 양국은 이번 피폭 사태의 배후 이상으로, 즉 사실상 주범으로 이란을 지목하는 양상입니다

- 사우디/미국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① 후티 반군은 10개 드론을 사용했다지만 실제 폭격은 17곳이 당했고, ② 예멘서 피폭시설까지 500마일(약 800km)인데 드론으로 주행이 쉽지 않고, ③ 불발된 미사일 잔해가 이란 것과 유사하며, ④ 위성으로 확인해보면 공격이 남쪽(예멘)이 아닌 북쪽(이란)에서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 이를 근거로 사우디와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보이자 이란 외교수장은 전면전(all-out war)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구요

- 일단 트럼프는 군사행동보단 제재 강화를 택하겠단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美 지침에 반하여 이란 원유 수입하던 국가는 中이었는데, 혹시 이 사태가 미-중 관계를 또 한 번 긴장으로 몰아넣을까요?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협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건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